

# 재산가치 매년 추락... 광주 단독주택은 애물단지?

### 2년간 아파트 600만원 오를때 40만원 떨어져 공시지가가 올라 세금부담 가중 소유주들 울상

광주지역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유독 아파트 선호현상이 두드러진 광주에서 단독주택의 재산가치는 해마다 떨어지는 반면, 공시가격은 올라 세금 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에 집중되는 것도 한 이유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3년 전국 건축물 동수·연면적'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거용 건물 중 아파트 비중은 72.8%에 이른다. 집 10

채 가운데 7채 이상이 아파트란 말, 전국 평균이 60.6%인 것을 감안하면 광주 시민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다 보니 광주지역 단독주택의 재산가치는 아파트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2년 전인 2012년 4월 광주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억3767만2000원이었으나 지난 3월에는 1억4364만

1000원으로 2년 새 596만9000원이 올랐다. 반면 단독주택은 같은 기간 1억2530만1000원에서 1억2490만2000원으로 2년 새 오히려 40만원이 하락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월 말 내놓은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에서 1월 기준 광주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14% 상승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단독주택 가격이 포함 수준이었지만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아파트와의 형평성 제고 차원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폭이긴

하지만 공시가격이 보유세(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단독주택의 시세변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올릴 방침을 밝히면서 광주지역 단독주택 소유자에게는 '앞을 볼 데 없겠다'는 느낌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28전월세 대책'에서 생애 첫 내집 마련 시 연 1%대 초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상은 아파트만 해당된다는 점도 단독주택 소

유주에겐 불만이다. 가격이 비싼 아파트 대신 단독주택 구입을 원하는 시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병윤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장은 "광주지역 단독주택은 대부분 지어진 지 오래인데다 규모가 작고 단열이 안되는 집이 많아 젊은층과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단독주택을 헐고, 리모델링하거나 원룸 등으로 새로 건축한 경우, 인근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면도 있어 단독주택 구입을 원한다면 주변환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가 고객이 선호하는 각종 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더욱 향상시킨 '2014년형 K3'를 8일부터 본격 시판한다. (기아차 제공)

## 기아차 '2014년형 K3' 시판

### USB 충전기·고급화 트림 등 사양 대폭 강화

기아자동차가 고객 선호사양을 대폭 강화한 '2014년형 K3'를 8일부터 본격 시판한다.

새 차는 전 모델에 USB 충전기를 기본 적용하고, K3 콕 가솔린 모델에 고급화 트림을 추가하는 등 기존 K3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K3 가솔린 세단 모델의 경우 첫차 고객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 주력인 트랜드 트림에 전방주차보조 시스템을 기본 적용하고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을 기본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였다.

또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높은 실연비와 성능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3 디젤 모델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과 플렉스 스티어 기능을 전 트림에 적용해 장거리 운전이 많은 디젤 고객들의 주행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고, 럭셔리트림에 16인치 알루미늄 휠을 추가할 수 있게 해 외관 스타일을 향상시켰다.

2014년형 K3의 판매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 세단 가솔린 모델 1543만~1999만원, 세단 디젤 모델 1930만~2190만원, 콕 모델 1795만~1985만원, 유로 모델 1853만~2035만원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중기청 '초·중급 기술인력 지원사업' 최대 2800만원 지원...6월까지 접수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오는 6월30일까지 '2014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시적 기술인력 부족 완화 및 원활한 중소기업 유입 촉진, 지원인력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작

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선정된 기업들은 업체별 최대 2년동안 28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고 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35.9%), 전기·전자(21.6%), 기계·소재(11.7%), 지식서비스(9.3%) 등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최소 1개월간 미취업 상태인 인력을 채용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갤럭시 S5 구매고객에 '갤럭시 기프트' 삼성전자가 '갤럭시 S5' 구매 고객에게 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인 '갤럭시 기프트'(Galaxy Gifts)를 제공한다. 선물 패키지에는 프리미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워크아웃 트레이너', '리크' 등 16가지 인기 유료 서비스 16종을 비롯, 한국 고객을 위한 특화 서비스 이용 쿠폰 4종을 포함한 60만원 상당의 혜택이 들어있다. <삼성전자 제공>

## KT 대규모 명예퇴직...6000여명 전망

KT는 8일 노사 합의에 따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명예퇴직 대상은 전체 임직원의 70%를 차지하는 근속 15년 이상 직원 2만3000명이다. 지난 2009년 명예퇴직 당시 6000여명이 퇴직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특별 명예퇴직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초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근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은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다. 또 개인선택에 따라 추가로 가산금을 받거나 KT M&S 등 그룹 계열사에서 2년간 근무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퇴직금 이외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평균적으로 퇴직 전 급여의 2년치 수준이다. 명예퇴직 10일부터 24일까지 희망자 접수를 받고, 25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퇴직 발령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39개 업체 참가 조선인력 등 300여명 채용

### 전남도 10일 대불산단 일자리 취업 박람회

전남도는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에서 현장 중심의 '2014년 대불산단 일자리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전남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가 공동 주최하고 영암군이 주관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현대상호중공업과 대한조선 등 대기업을 비롯한 DK 아즈텍(주) 등 우수

중소기업 39개가 참가해 3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대불산단 내 집적화된 조선업종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조선업체들의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참가한 구인 조선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산업단지 현장에서 공급하기 위해 조선해양학과 개설 대학교와 도내 특성화고교생, 한국폴리텍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학생들을 박람회에 적극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 기업별 채용관을 설치해 채용담당자와 구직자 간 일대일 현장 면접을 추진하고, 취업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으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 코스피지수 1993.03 (+3.33)	▼ 코스닥지수 554.07 (-0.16)	▲ 금리(국고채 3년) 2.88% (+0.01)	▼ 원·달러 환율 1052.20원 (-3.20)
----------------------------	---------------------------	-------------------------------	-------------------------------

## 효성 세계최대 펄프시험센터 준공

### 창원공장에 건립...“2020년 매출 1조원 달성”

효성의 펄프 및 담수설비 전문 계열사인 효성굿스프링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펄프 시험 센터를 준공해 국내 펄프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효성굿스프링스는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공장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 펄프시험센터를 건립했다고 밝혔다. 성능시험에 동원되는 대형 펄프(11만m<sup>3</sup>/h)는 서울시민이 하루 사용하는 물의 양을 24시간 만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크다.

효성굿스프링스는 발전과 석유, 담수 플랜트용 펄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용 펄프를 생산하는 국내 1위의 펄프 제조업체로 매출의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 1998년 국내 기업

으로는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등급 펄프에 대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자격인증을 취득했고, 2009년에는 전 세계 10여 개 펄프업체만이 확보하고 있는 미국 기계화학회원자격 기기 제조 자격 인증 및 원자력 부속물·부품 제작 인증을 획득하는 등 국내 펄프 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효성굿스프링스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2020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20년까지 250명 이상의 직접 일자리 창출과 협력사의 매출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도 예상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TV조선 특별기획드라마 **보릿속으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이들의 사랑과 야망!

기획 TV조선 제작 강호 프roduxion 크리에이터 정성희 극본 이한호 연출 김상래

최수종 손태영 류진 최철호 이인혜 독고영재 정호빈 4월 18일부터 매주 금·토 밤 11시 방송

박상면 홍일권 김진근 이종수 공정한 이정용 최규환 이기찬 현석 김민경 전수경 이철민 고명환 정명환 이영후 이원서 조영서 김권 김예원 윤홍빈 김현준